

2026.06.16.

중앙 계열사 Credit Event 발생에 따른 등급조정 내역 및 향후 모니터링 요인

양희철 기업3실 선임연구원
02.368.5399
hcyang@korearatings.com

하현수 기업3실 수석연구원
02.368.5352
hsha@korearatings.com

송중휴 기업3실 실장
02.368.5465
huesong@korearatings.com

2026년 6월 14일 중앙홀딩스(주), 중앙피앤아이(주), (주)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주)에 이어, 6월 15일 제이티비씨(주)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Credit Event가 발생하였다.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반영하여 6월 15일자로 (주)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주), 제이티비씨(주)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각각 D로 하향 조정하였다.

중앙일보(주)와 에스엘엘중앙(주)의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력 계열사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자체 영업자금 조달 및 투자 등 재무활동 상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전반적인 유동성 대응 측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6월 15일자로 장·단기 신용등급을 각각 B-(부정적검토) 및 C로 하향 조정하였다.

[표 1] 중앙 계열사 등급조정 추이(2026년~)

기업명	평가일자	신용등급		주요 조정 사유
		장기	단기	
콘텐츠리중앙	2026.04.23	-	A3-	계열 지원부담 등 과도한 재무부담 지속 유동성 대응능력 저하, 유동화증권 차환 등 단기 상환부담 대응 여부 모니터링 필요 2026.06.14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6.05.12	-	B+ ↓	
	2026.06.15	-	D	
메가박스중앙	2026.04.23	-	A3-	당기순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축소 등 재무안정성 저하 콘텐츠리중앙 계열 전반의 유동성 대응능력 저하 2026.06.14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6.05.12	-	B+ ↓	
	2026.06.15	-	D	
제이티비씨	2026.06.12	BB ↓	B ↓	계열 재무위험 전이 가능성, 유동성 불확실성 확대 유동화차입금 상환 불이행, 관련 유동화증권 등급 D 부여 2026.06.15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6.06.15	C	C	
	2026.06.15	D	D	
에스엘엘중앙	2026.06.12	BB+ ↓	B+ ↓	계열 재무위험 확대에 따른 사업·재무 불확실성 확대 콘텐츠리중앙 회생신청 등 계열 유동성 위험 현실화
	2026.06.15	B- ↓	C	
중앙일보	2026.05.15	BBB(N)	A3	계열 지원부담에 따른 재무구조 저하, 재무위험 전이 가능 계열 재무위험 확대에 따른 사업·재무 불확실성 확대 계열 전반의 유동성 대응 추이 모니터링 필요 계열 유동성 위험 현실화에 따른 사업·재무 불확실성 심화
	2026.06.12	BB+ ↓	B+ ↓	
	2026.06.15	B- ↓	C	

주) 1. 중앙일보에스, 중앙일보엔씨의 기업어음/전단채(중앙일보 지급보증) 신용등급은 기재 생략함

2. 장·단기 신용등급이 C 또는 D인 경우에는 등급감시(↑: 긍정적 검토, ↓: 부정적 검토)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한국기업평가

KR SPECIAL COMMENT- 중앙 계열사 Credit Event 발생에 따른 등급조정 내역 및 향후 모니터링 요인

그룹 전반의 영업실적은 202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양상이 이어져 왔다. 중앙일보와 제이티비씨 등 미디어 계열사들의 핵심 수익기반인 방송광고 매출이 구조적인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메가박스중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상영업 침체 및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에스엘엘중앙은 콘텐츠 제작비 부담 확대 및 해외 자회사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잉여현금 적자로 차입부담이 꾸준히 누적된 가운데, 2025년말 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표4]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단순합산 기준)은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룹 현금창출력 저하 및 차입부담 확대로 자금조달 기반이 위축된 가운데, 계열사 간 직접적인 단기자금 지원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에 대응하면서 계열 내 재무위험 연계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다. 이번 계열사들의 동시다발적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부담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며 자금조달 여건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룹 차입부담 축소 및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룹 사옥과 계열사 지분 유동화 등 자구계획의 실효성 또한 훼손되어 자체적인 자구책으로는 단기 유동성 위험 완화와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6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제적인 계열사 리스크 차단 등을 목적으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계열사들의 경우에도 금융 기관 차입금 미상환 또는 채무재조정 착수 등에 따른 추가적인 Credit Event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향후 시장성 차입금 및 금융기관 여신을 포함한 단기성차입금 차환 등 단기 상환부담 대응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2] 주요 계열사 관련 미상환 유동화증권 현황(2026.06.15 기준)

(단위: 억원)

기업명	관련 SPC	유동화증권			비고
		만기일	발행회차	발행액	
콘텐츠리중앙	세레니티제일차	26.07.24	제28 회	303	기초자산은 메가박스중앙의 신종자본대출 자금보충인(콘텐츠리중앙) 신용도 연계 콘텐츠리중앙 회생개시 신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위험 확대로 2026.06.15 ABSTB 등급 C(sf)로 하향 조정
	세레니티제이차	26.06.16	제19 회	306	
제이티비씨	미르제이차	26.06.12	제2-2 회	56	기초자산은 제이티비씨 대출채권, 만기 미상환으로 D(sf) 부여
	에이치와이아테네제이차	26.06.23	제1-2 회 외	205	기초자산은 제이티비씨 대출채권, 차주(제이티비씨) 신용도 변화로 2026.06.15 ABSTB 등급 C(sf)로 하향 조정
	제이티비씨제이차	26.06.12	제1-9 회	150	기초자산은 제이티비씨 대출채권, 만기 미상환으로 D(sf) 부여
		26.07.23	제2-8 회	200	6/12 자 차주(제이티비씨)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으로 2026.06.15 ABSTB 등급 D(sf)로 하향 조정
중앙일보	에이치와이중앙제일차	26.08.28	제13 회	200	기초자산은 제이티비씨 신종자본대출, 자금보충인(중앙일보) 신용도 변화로 2026.06.15 ABSTB 등급 C(sf)로 하향 조정
	에이치와이중앙제이차	26.07.02	제10 회	200	
	에이치와이중앙제삼차	26.08.04	제7 회	300	기초자산은 콘텐츠리중앙 신종자본대출, 자금보충인(중앙일보) 신용도 변화로 2026.06.15 ABSTB 등급 C(sf)로 하향 조정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업체제시, 한국기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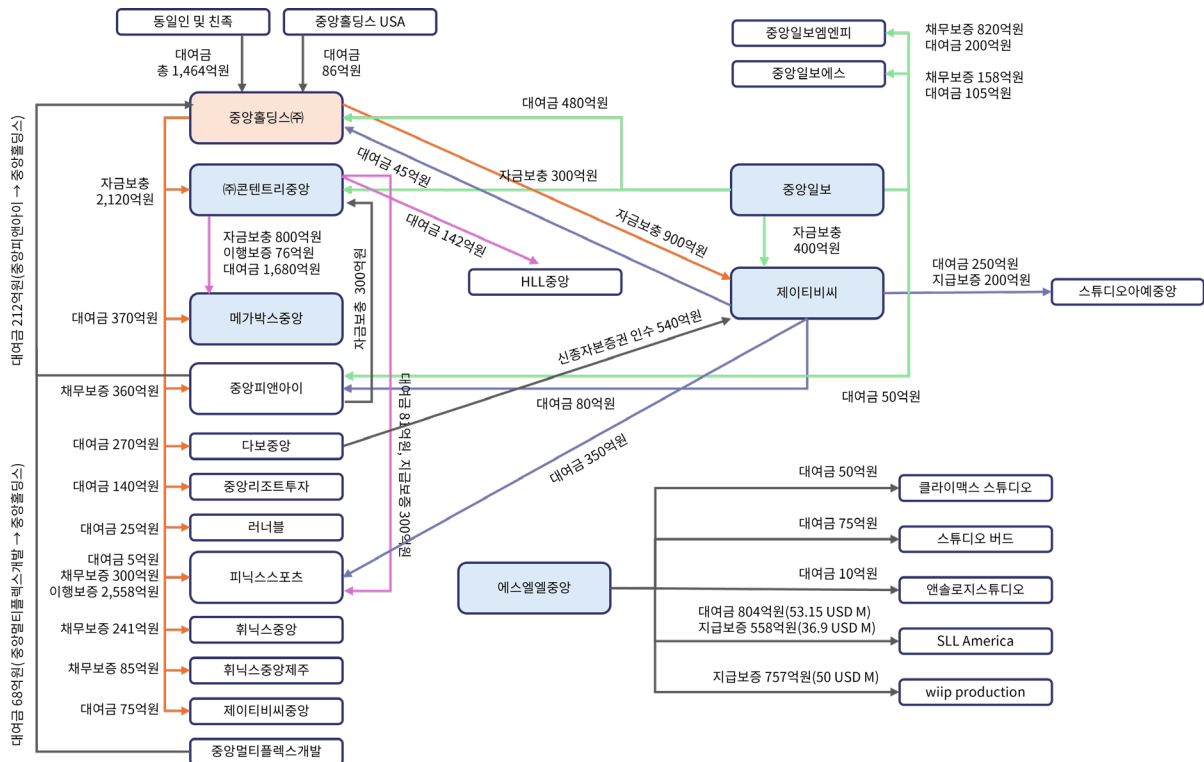
[표 3] 주요 계열사 시장성 차입금 현황(2026.06.15 기준)

(단위: 억원)

기업명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합계	비고
제이티비씨	360	80	3,190	3,630	
중앙일보	300	20	1,544	1,864	
중앙일보에스	65	-	-	65	CP 및 전단채는 중앙일보 지급보증
중앙일보엠앤피	-	482	10	492	CP 및 전단채는 중앙일보 지급보증
콘텐츠리중앙	-	-	995	995	
에스엘엘중앙	50	125	1,718	1,893	
메가박스중앙	-	547	594	1,141	전단채는 콘텐츠리중앙이 보유
합계	775	1,254	8,051	10,080	

주) 회사채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지 않은 사모사채는 집계되지 않음
 자료) Seibro, 한국기업평가

[그림] 계열사 간 자금지원 및 신용공여 현황 (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각사 공시자료 및 제시 자료 종합

[표 4] 주요 계열사 재무요약

(단위: 억원, %, 배)

구분	연도	매출액	EBIT	EBITDA	자산	부채	총차입금	순차입금	EBIT 마진	EBITDA 마진	순차입금 /EBITD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중앙홀딩스	2023(12)	428	7	75	6,476	5,452	3,896	3,759	1.7	17.5	50.2	532.9	60.2
	2024(12)	437	52	112	6,275	5,605	3,914	3,675	12.0	25.6	32.9	836.1	62.4
	2025(12)	319	21	66	7,988	6,814	5,024	3,155	6.6	20.7	47.7	580.6	62.9
중앙피앤아이	2023(12)	125	39	72	3,864	1,798	1,550	1,438	30.7	57.2	20.0	87.0	40.1
	2024(12)	120	35	68	4,220	2,580	2,213	1,333	29.5	56.3	19.7	157.4	52.5
	2025(12)	124	35	65	3,694	2,572	2,195	1,430	28.5	52.4	22.0	229.3	59.4
제이티비씨	2023(12)	3,422	-584	-364	4,175	3,795	2,315	1,447	-17.1	-10.6	n.a.	999.2	55.4
	2024(12)	3,309	-287	-66	4,770	4,149	2,865	2,415	-8.7	-2.0	n.a.	668.0	60.1
	2025(12)	3,338	32	235	5,496	4,650	3,556	2,792	1.0	7.0	11.9	549.8	64.7
중앙일보	2023(12)	2,736	56	129	3,265	2,245	1,586	1,538	2.1	4.7	12.0	220.2	48.6
	2024(12)	2,822	89	182	4,129	2,994	2,272	2,170	3.1	6.4	11.9	263.7	55.0
	2025(12)	3,210	175	262	4,946	3,748	2,887	2,570	5.5	8.2	9.8	312.9	58.4
중앙일보에스	2023(12)	262	13	14	123	400	320	291	4.9	5.4	20.5	-144.4	260.0
	2024(12)	242	9	10	102	389	310	288	3.7	4.1	28.7	-135.4	304.8
	2025(12)	236	13	14	88	387	310	300	5.3	5.8	22.1	-129.7	350.4
중앙일보엠앤피	2023(12)	733	4	13	363	1218	964	859	0.6	1.8	64.1	-142.5	265.5
	2024(12)	683	35	45	385	1257	954	915	5.2	6.6	20.3	-144.1	247.8
	2025(12)	770	47	50	432	1342	1058	961	6.1	6.5	19.1	-147.5	244.7
콘텐츠리중앙	2023(12)	304	-24	0	8,848	3,812	3,055	2,851	-7.8	0.0	20608.5	75.7	34.5
	2024(12)	318	21	41	10,267	3,924	3,201	2,173	6.6	12.8	53.3	61.9	31.2
	2025(12)	352	20	44	10,870	4,640	4,138	3,081	5.6	12.5	70.0	74.5	38.1
메가박스중앙	2023(12)	3,096	-177	380	9,898	8,270	6,299	5,683	-5.7	12.3	15.0	508.0	63.6
	2024(12)	2,912	-153	366	9,795	8,736	6,904	6,322	-5.3	12.6	17.3	824.7	70.5
	2025(12)	2,600	-124	358	8,286	7,911	6,570	5,914	-4.8	13.8	16.5	2108.4	79.3
에스엘엘중앙	2023(12)	3,492	-77	850	10,117	4,637	3,685	3,065	-2.2	24.3	3.6	84.6	36.4
	2024(12)	3,930	75	1,212	9,994	5,004	3,749	2,991	1.9	30.8	2.5	100.3	37.5
	2025(12)	3,616	307	1,720	9,893	4,663	3,633	3,265	8.5	47.6	1.9	89.2	36.7
에이치엘엘중앙	2023(12)	149	-16	-12	830	281	212	189	-10.6	-8.2	n.a.	51.3	25.6
	2024(12)	227	-13	-9	831	353	230	181	-5.5	-3.8	n.a.	73.7	27.7
	2025(12)	425	19	24	1,041	554	227	195	4.5	5.7	8.0	113.8	21.8
단순 합계	2023(12)	14,747	-759	1,157	47,959	31,908	23,882	21,120	-5.1	7.8	18.3	198.8	49.8
	2024(12)	15,000	-137	1,961	50,768	34,991	26,612	22,463	-0.9	13.1	11.5	221.8	52.4
	2025(12)	14,990	545	2,838	52,734	37,281	29,598	23,663	3.6	18.9	8.3	241.3	56.1

주) 1. 각사 별도기준

2. EBITDA가 음수인 연도의 순차입금/EBITDA 지표는 n.a. 로 표기
자료) 각사 공시자료, 한국기업평가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받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